



군포소식

2016 군포의 책

2015 12

vol.342

군포시와 SNS 친구맺기

blog.naver.com/o2gunpo

twitter.com/gunpocity

facebook.com/gunpocity

발행일 | 2015년 12월 2일 발행인 | 군포시장 편집 | 군포시청 홍보실 전화 | 031-390-0663 팩스 | 031-390-0069

정기구독 신청(무료) | <군포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홍보실에 전화 신청 하세요.

gunpo
군포시

큰 시민 작은 시
www.gunpo.go.kr

TOP 5는 시민 손으로 정한다!

‘군포의 책’ 시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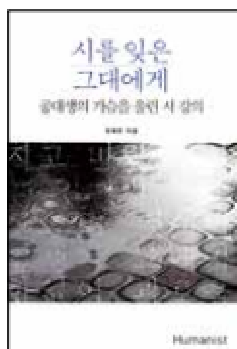
2016 군포의 책 후보 도서 10권 선정

대한민국 제1호 책 읽는 도시 군포의 모든 시민이 2016년에 애독할 책은 무엇일까? ‘2016 군포의 책’이라는 명예를 얻기 위한 예선에 오른 도서는 모두 339권, 이 가운데 단 10권만이 본선에 올랐다. 앞서 시는 7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100일간 각계각층에서 내년도 군포의 책을 추천받았는데, 이 가운데 중복 추천 내용을 제외하고 총 339권을 심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지역 문인과 도서관 사서, 교사 등 독서문화 전문가 14명을 ‘2016 군포의 책’ 선정위원으로 위촉, 5차에 걸친 심의 끝에 시민 선호도 조사 대상에 올릴 10권의 책을 추려냈다.

7일부터 21일까지 시민 선호도 조사

시는 압축된 ‘2016 군포의 책’ 후보 도서 10권을 공개하고, 12월 7일부터 21일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 시민 선호도 1순위부터 5순위까지의 도서가 선별되면, 이달 중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시행해 ‘2016 군포의 책’ 한 권을 선정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한편 ‘2016 군포의 책’ 공식 선포식은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타 더 자세한 정보는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를 참조하거나 시 책읽는정책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책읽는정책과 390-0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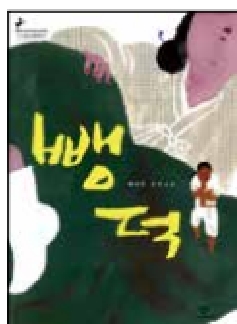
분 야 시
도 서 명 시를 읽은
그대에게
저 자 명 장재찬
출 판 사 휴머니스트
출판년도 2015

그저 입시를 위해 문학 참고서로 시를 배워 온 당신. 접대기는 가라고 사람만이 희망이라고 아무리 외쳐 봐야, 내 몸 뉘일 방 한 칸 없고, 열정을 불사르겠다는데도 부르는 곳은 없으며, 부장님은 퇴근 무렵 보고서를 내던지고, 오늘밤에도 월급은 통장을 스치운다.

그래도 우리 마음만은 가난하지 말자고, [죽은 시인의 사회] 속 키팅 교수를 꿈꾸며 메마른 심장의 상징 공대생들과 함께 시를 읽기 시작한 사람이 있다. 한양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정재찬 교수는 때로는 지나간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때로는 누

군가의 추억이 된 영화를 보고,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가슴을 후비는 욕 한 마디를 시 구절에 덧붙이면서 우리 시대를 품미한 최고의 현대시들을 학생들과 함께 읽었다.

그렇게 낡은 교과서 속 시 지문은 공대생마저 눈물짓게 할 가슴을 적시는 불후의 명시로 되살아났다. 한 번쯤 그렇그런 가슴에 고인 그리움이 왈칵 쏟아지는 그 순간, 시는 찾아오고, 청춘은 다시 시작된다. 기쁜 우리 젊은 날 좌절한 그대여, 지금은 바로 진짜 시를 만날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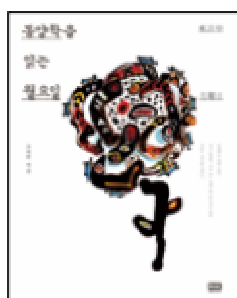
분 야 소설
도 서 명 뽕덕
저 자 명 배유안
출 판 사 창비
출판년도 2014

배유안 장편소설 『뽕덕』이 창비청소년문학 시리즈 61권으로 출간됐다. 스태디셀러 『조정리 편지』와 청소년소설 『스프링벅』 등을 통해 간결한 문체와 빛나는 상상력을 선보이며 작가적 개성을 다져 온 배유안이 이번에는 『심청전』의 주·조연들을 빌려와 가족과 효 이야기를 새롭게 펼쳐 보인다. 작가 배유안은 ‘의문스러운 악녀’의 대명사로 우리에게 익숙한 ‘뽕덕 어미’라는 인물을 주목했다.

그녀의 아들 ‘뽕덕’(병덕)이 정말로 존재했으리라는 참신한 발상을 바탕으로 두고 막힘없이 이야기를 풀어낸다. 특히 주

인공 병덕이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향해 느끼는 애증과 그러한 유감을 딛고 성장해 가는 모습이 공감 가게 그려진다.

아들을 빼앗긴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괴팍하게 한세월을 살아 내는 뽕덕 어미의 모습 또한 밭살스러우면서도 동정이가 되고 묘한 생명력을 뿜어낸다. 매끄러운 서사 속에 뛰어난 해학과 골재미를 담아낸 『뽕덕』은 ‘효녀 심청’으로 대표되는 효의 가치와 가족의 소중함을 지금 현실에 비추어 볼 수 있게끔 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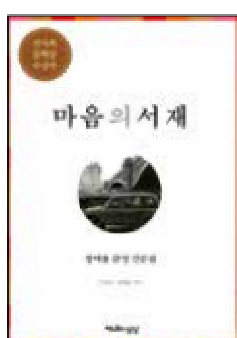
분 야 인문
도 서 명 동양학을 읽는
월요일
저 자 명 조용현
출 판 사 알에이치
코리아
출판년도 2012

신문 열독률이 가장 높은 월요일, 조선일보를 펼치면 ‘조용현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8년째 기고 중인 조용현의 글을 만날 수 있다. <동양학을 읽는 월요일>은 조직과 월급에 얽매어 떠나지도, 자기자신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현 작가가 선사하는, 독서와 여행의 파생상품이자 인생살이의 네 가지 방도를 보여주는 인문서이다.

본문은 총 네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만 권의 책을 읽다 讀萬券書>에서 조용현은 “얼굴을 보는 관상, 그 집의 형태를 보는 가상이 있는데, 서상이라는 것도 있다”며 책의 질과

양, 서재의 구조와 정돈 상태로 그 사람의 정신적 깊이와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2장 <만 리 길을 여행하다 行萬里路>에서는 “인생을 알려면 건달이 되어보아야 한다”며 천하주유의 건달론을 펼친다. 3장 <사물을 보고 이치에 이르다 格物致知>는 ‘토정 선생’이라고 일컬어지던 제산 박재현의 일화를 통해 신동한 예측력은 일상의 관찰력에서 비롯됨을 괴력한다. 4장 <대자연의 이치는 끝이 없다 調和無窮>에서는 별자리, <주역>, 계절의 순환에 깃든 의미를 밝히고 있다.



분 야 에세이
도 서 명 마음의 서재
저 자 명 정여울
출 판 사 천년의상상
출판년도 2015

2013년 2월 출간돼 제3회 전속회문학상을 수상한 <마음의 서재>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 산문집은 ‘정여울’이라는 사람을 주어로 조금씩 드러난 책이자, 오랜 시간 동안 품어온 사유를 펼친 글쓰기의 전환점이 된 책이다.

저자는 문학에서 철학으로, 책에서 영화로, 여행에서 인문학으로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를 해왔지만 사실 그 경계가를 분명했던 것은 아니다. 넘나들이라기보다 경계에서 쓴 글이었으며, 여러 주제를 ‘정여울’이라는 프리즘에 통과시켜 녹여낸 것이었다. <마음의 서재> 역시 동서고금의 논저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더불어 문학 이외의 음악, 미술, 영화 등의 인접 장르들, 사회과학, 자연과학을 아우르고 있다. 단순히 ‘책

에 대한 책’으로 한정 짓거나 인문서로만 머물러 있기에는 아쉬움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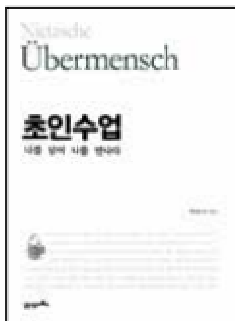
독자들이 좀 더 천천히, 좀 더 친밀하게 그의 글과 만나기를 꿈꾸며 ‘감성 산문집’이라는 이름 아래 새로 옷을 갈아입혀 낸다. 7부 50편의 이야기를 색깔별로 4장으로 재구성하고, 글과 장 제목을 다시 달았다. 특별히 저자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함께 담았다. 글을 읽으며 저자가 선 곳에서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느꼈으면 하는 소망이었다.



분 야 역사/신화
도 서 명 살아있는 한국 신화
저 자 명 신동훈
출 판 사 한겨레출판
출판년도 2014

<살아있는 우리 신화>의 완전개정판. 총 4부와 세상의 창조, 존재와 운명, 삶과 죽음, 욕망과 사랑, 부모 자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 신화 속 여성과 영웅, 빛과 어둠 속 신들 등 핵심 화두에 따라 열네 거리로 구분하여, 화려한 그리스 로마 신화나 기괴하고 험상궂은 중국 신화와 달리 소박하고 자연스럽고 친근한 한국 신들과 그들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들의 사연이 담긴 한국 신화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국 신화 속 신들은 원래는 인간이었던 존재이다. 대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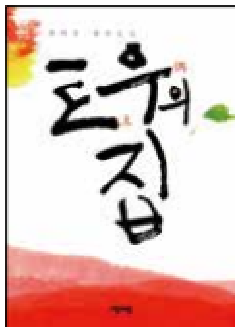
든 비루하든, 밝은 곳에 있든 어두운 곳에 있든 제 역할을 맡아 하는 신으로 거듭난 그들에게는 이력과 사연이 있다. 세상의 창조에 일조하기도 하고, 신 또는 인간과 다름을 벌이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위계를 만들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존재와 운명, 삶과 죽음, 욕망과 사랑, 부모로 자식으로서의 삶 속에 휘말렸다 극복하고 깨달아 신성한 존재로 거듭나기도 한다.



분 야 인문
도 서 명 초인수업
저 자 명 박찬국
출 판 사 21세기북스
출판년도 2014

우리가 살면서 던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10가지 질문과 이에 대한 니체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철학과 박찬국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강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책에서 니체 철학의 정수를 엿볼 수 있는 인생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라고 푸념하는 우리에게 니체는 “안락한 삶을 경멸하라”고 이야기하고,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라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그런 물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여야만 해결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가 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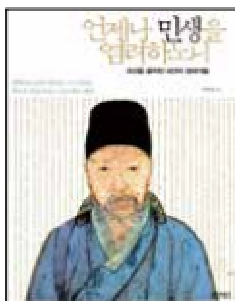
시선에 신경을 쓰고 남의 평가에 민감한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예근성 때문이라고 니체는 충고한다. 남의 시선과 평가에 연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노예의 지위로 하락시키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니체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니체는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린 시대에 초인의 이상이 들어서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필요한 일을 견디며 나아갈 뿐 아니라 그 고난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고난까지도 자기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이다.



분 야 소설
도 서 명 토우의 집
저 자 명 권여선
출 판 사 자음과모음
출판년도 2014

이상문학상, 한국일보 문학상 등을 수상작가 권여선의 세 번째 장편소설. 큰 길 곁으로 골목마다 채국채국 집을 지어 머리를 지켜든 다죽류 벌레처럼 보이는 삼벌레고개. 그곳은 사람이 토우가 되고, 토우가 사람의 집에 들어가 살다가, 캄캄한 무덤이 되어버린 '토우(土偶)의 집'이다. 소설 <토우의 집>의 주 배경인 '삼벌레고개'는 삼악산의 남쪽을 복개하면서 산복도로를 만들고, 그 시멘트도로 주변으로 지어진 마을과 그 골목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제집 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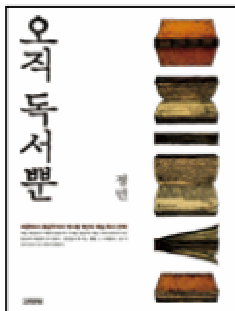
사람, 전세 사는 사람, 월세 사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 주인공 '안 원'에게는 언니 '영'과 동생 '희'가 있다. 이 세 자매는 주인집에 세들어 살고 있으며, 주인집 아들 '은철'이와 마을의 비밀을 조사하는 스파이가 되기로 한다. 하지만 원이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갑육에 갇혔다'는 소문이 무성히 돌았으며, 아버지는 세 아이들의 이름처럼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인혁당 사건'을 연상케 하는 이 소설은 '토우가 되어 묻힌' 사람들의 자리, '토우의 집'이다.



분 야 역사/문화
도 서 명 언제나 민생을 염려하노니
저 자 명 이정철
출 판 사 역사비평사
출판년도 2013

조선을 움직인 4인의 경제가들. 조선시대 경제가인 이이, 이원익, 조익, 김육의 이야기다. 이들은 민생의 원칙을 안민에 두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부었다. 책은 '조선의 개혁'이라는 큰 주제 하에 네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작은 평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평전 속에서 각각의 삶과 이념, 그 시기의 정치 상황과 사건 전개, 그리고 인물 관계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책은 옛날 사람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책을 펴내며'의 제목을 “해 아래는 새것이 없나니”로 뽑았다. 이 책을 읽으며 곱씹을 문구다. 역사에서 지나갔다가 다시 오지 않는 것은 없다는 점, 즉 과거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오늘날 정치권도 똑같이 민생 살리기를 외친다는 것. 그것을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다.



분 야 인문
도 서 명 오직 독서뿐
저 자 명 정민
출 판 사 김영사
출판년도 2013

입으로만 흉내 내는 앵무새 공부, 읽는 시늉만 하는 원숭이 독서를 뛰어넘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핵심 독서 전략을 배운다. 허균, 이익, 양응수, 안정복, 홍대용, 박지원, 이덕무, 홍석주, 홍길주. 그들은 어떻게 살아 숨 쉬는 독서를 통해 책의 핵심을 꿰뚫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정립했을까? 어떻게 의표를 찌르는 글쓰기와 기적 같은 학문적 성취를 완성했을까? 독서 담론에도 필자마다 개성적 시각들이 돋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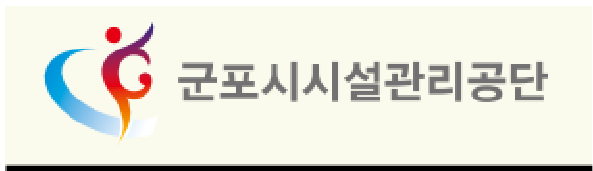
마흔 권이 넘는 책을 쓴 인문학자 정민이 오늘날 독서를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인터넷 시대가 될수록 독서의 소중함은 더 절실해진다. 어려서부터 손가락을 움직여 지식을 얻지만 깊은 사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독서뿐이다. 귀 밝고 눈 맑은 젊은이의 예지는 게임으로는 결코 습득되지 않는다. 빨리 가고 싶은가? 속도를 늦춰라. 서두를수록 목표에서 멀어진다. 책을 통해서만 생각은 깊어진다.



분 야 인문
도 서 명 프로이트의 의자
저 자 명 정도안
출 판 사 융진지식하우스
출판년도 2009

<프로이트의 의자>는 '정신분석 공부'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놓은 에세이 형식의 책이다. 이 책의 이야기를 따라가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지도가 한눈에 보인다.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떠오르는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은 '전의식'에 산다. 평소에는 엄두도 못 내다가 술기운에 고백하는 금지된 사랑은 '무의식'에 살고 있다. 유머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공격성'을 바꿔 표현하는 것이다. 지나치게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에게

는 남에게 잔인하게 대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이렇듯 이 책은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들을 저도 삼아 일상에서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마음의 고민들과 함께 읽어간다. 이 책은 국내 최초로 국제정신분석학회가 인증한 프로이트 정신분석가인 저자와 함께 하는 '내 무의식을 찾아가는 첫 번째 여행'으로, 무엇보다 아픈 곳을 숨기려고 하는 자신과 마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친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산본로데오거리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교체 시행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은 11월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산본로데오거리 내 공영주차장 2개소(중심2, 행복1)의 카스토퍼 교체 공사를 시행했다.

기존 시설물의 파손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공단 관계자는 “시설물 파손 및 이탈을 방지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한 노란색 강판 카스토퍼를 주문 제작해 설치했다”며 “고정방식 또한 개선해 고객들의 주차장 이용이 더 편리해지고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각종 노후화 설비 최적관리 및 운영방법 개선, 안전보건 관련 위기대처 대응능력 제고 및 전문 인력 육성 등을 지속해서 시행해 전 사업장에서 무사고·무재해 기록을 경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지원팀 390-768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 안내

■ 운행차량 12대(카니발, 휠체어 탑승 가능)
■ 이용대상

구분	장애인	고령자	임신부
이대 상	장애 1~3급 장애인 (보호자 2명 탑승 가능)	노인장기전제요양 등급 휠체어 이용 가능한 시민(보호자 2명 탑승 가능)	임신 5개월 이상 임신부(보호자 2명 탑승 가능)
증서 분류	복지카드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산모수첩

※보호자 탑승 원칙

■ 운행지역

- 이동목적: 관내지역(군포시, 의왕시, 안양시).
- 관외지역(서울, 광명, 과천, 수원 - 편도 운행)
- 치료목적: 서울시, 경기도, 인천 전역 운행.



2시간 대기 및 왕복 운행(증빙서 제출)
·기타사항: 공함 편도 운행

○ 이용방법 선착순 예약(2일전부터 당일까지)
○ 이용시간 평일 06:00~24:00,
 주말(휴일) 08:00~20:00
○ 이용요금 1,200원(10km), 초과 5km당 100원
○ 상담예약 월~토 09:00~18: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899-4428

시민체육광장 12월 정기 휴관 안내

○ 휴관일 2015. 12. 7(월), 12. 21(월)
○ 휴관장소 실내 2, 3체육관(탁구장, 배드민턴장)
○ 휴관이유 체육관 내 전체 시설물 점검 및 내부 청소 시행

체육시설팀 390-7677



여성회관 제58기 교육수강생 모집

■ 10% 우선 접수(1인 1강좌)

▶ 신청일시 2015. 12. 7(월) 09:00~18:00
▶ 신청대상 군포시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통반장, 여성회관 자원활동가

▶ 모집인원 정원의 10%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상위단계 우선 접수

▶ 신청일시 2015. 12. 8(화) 09:00~18:00
▶ 신청대상 제57기 교육 수료생 중 동일과목의 상급과정 신청자

▶ 모집인원 정원 내 선착순 신청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일반 접수

○ 2015. 12. 9(수) 09:00부터
외국어, 교양, 야간 프로그램

○ 2015. 12. 10(목) 09:00부터
기술기능, 건강, 실버, 여담 프로그램

○ 2015. 12. 11(금) 09:00부터
컴퓨터, 자격증, 문화예술, 특강 프로그램

○ 신청방법 및 모집인원
인터넷 신청 80%, 방문 신청 20%

※ 단, 실버 프로그램은 인터넷·방문 각각 50%

여성회관 390-3080

꿈을 더하고 사랑을 나누는 꿈사랑 프리마켓

▶ 일시 2015. 12. 17(목) 10:30~16:00
▶ 장소 군포시평생학습원 1층 로비
▶ 참여팀 14팀(2015. 11. 24부터 참여 신청, 선착순 접수 중)

▶ 내용

- 핸드메이드 창작품 전시 및 판매
- 수입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서 배움의 공익적 가치 공유

평생학습원 390-3053

군포나눔미학교 12월 프로그램

▶ 장 소 군포시평생학습원 및 군포시여성회관 등
▶ 내 용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치는 재능나눔
▶ 수 강 료 감사료와 수강료 모두 무료(재료비 별도)
▶ 신 청 네이버카페 cafe.naver.com/gpnanumi

강좌명	강사	일시	장소
김숙이 파고드는 우리역사 m 고려	김정환	12. 5일(토)부터 매주 토요일 (5. 12. 19. 26일)	군포시평생학습원 403호
우리 것의 아름다움, 쉽게 배우는 한국무용	전덕수	12월 7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7. 14. 21. 28일) 15:00~16:00	군포시평생학습원 3층 에어로빅실
할아버지가 알려주는 마법천자문	김남철	12월 8일(화)부터 매주 화요일 (8. 15. 22. 29일)	군포시평생학습원 303호
양말인형으로 루돌프나 산타 만들기	박선옥	12. 10(목) 10:00~12:00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미술실
헤어 에센스 만들기	박선옥	12. 11(금) 10:00~12:00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미술실
크리스마스 비누 만들기	박선옥	12. 24(목) 10:00~12:00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미술실

시민문화팀 390-3071~3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내

일시	부 의 안 건
12. 1(화) 10:00~	제1차 본회의
12. 2(수) 10:00~	1.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숙 의원) 2. 2016년 군포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기획감사실) 3.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군포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기획감사실) 4. 군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보실) 5. 군포시 지역사회복지협약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정책과) 6. 군포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성가족과) 7. 군포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과) 8. 군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도시정책과) 9. 군포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교통과) 10. 군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원녹지과) 11. 군포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자치행정과) 12. 군포시 계약심의회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법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13.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14. 군포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보건행정과)
12. 3(목) 10:00~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예술진흥기금(홍보실) - 사회복지기금(복지정책과) - 노인복지기금(사회복지과) - 여성발전기금(여성가족과) - 체육진흥기금(청소년교육체육과) - 중소기업육성기금(지역경제과) - 식품진흥기금(위생과) - 육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 재난관리기금(안전도시과)
12. 4(금) 10:00~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기획감사실, 홍보실, 군포시시설관리공단
12. 7(월) 10:00~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복지국(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년교육체육과) 2.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 군포문화재단
12. 8(화) 10:00~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환경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교통과, 차량등록과) - 보건소(보건행정과, 산본보건지소)
12. 9(수) 10:00~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정책과, 공영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2.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수도사업소) 3.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하수도사업소)
12. 10(목) 10:00~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8개동), 안전도시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12. 11(금) 10:00~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책임있는사업본부(책임있는정책과, 중앙도서관, 산본도서관) - 군포1동(민원행정과(군포2동, 대야동), 복지과, 안전행정과) - 외회사무과
12. 14(월) 10:00~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3.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4. 2016년도 군포문화재단 수입·지출 예산안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계수조정 → 의결
12. 15(화) 10:00~	제2차 본회의

* 부속 1의 일부를 함

세금이 제대로 쓰일지 확인할 것



김동별 시의회 의장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12월 1일 개최돼 2016
년도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예산안이란 한 해 동안의 시민 살림살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사진과 장기적인 비전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즉, 예산안 심의란 29만 군포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사용될지 확인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며 감시하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군포시의회 의원들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최적 대안이 무엇인지를 시민의 관점에서 고민해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첫째,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이 제대로 부합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시는 시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시책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 11월에 집행부로부터 2016년 업무계획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심의에서는 업무계획과 예산안이 부합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겠습니다.

둘째,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돼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과거의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단순 증가한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성과관리제도와 일몰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행정통제기능을 가진 의회에서 그 성과를 따로 평가하는 등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의회는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함에 있어 우선순위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 영 기준(ZERO BASE)의 관점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방침입니다.

셋째, 군포시민의 의사 대변에 앞장서겠습니다.

비록 의원들은 각 지역에서 선출됐지만, 지역구민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군포시민 전체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만큼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활동할 것입니다. 의사결정 제일의 기준은 군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의회는 예산안 심의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도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재정의 중요성을 고려한 심도 있는 심의로 시민의 삶이 점차 나아지고 미래가 기대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의회 인터넷방송 운영

임시회·정례회 등 생방송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의회 조성, 소통 의정 실현을 위해 별도로 '군포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tv.gunpocouncil.or.kr) 운영을 통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의 의정활동 영상을 시민에게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회기별, 특별위원회별, 안건(부서)별, 시정질문 영상을 각각 확인 가능해 필요 영상을 찾는 데 쉬울 것이라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따라서 시의회 임시회 등을 직접 보기 어려운 시민, 관련 학습이나 조사 등을 위해 의회 방청이 필요한 이들은 군포시의회 인터넷방송을 활용하면 된다.

의사팀 390-8716

“모두 시민의 자녀”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김애란 이사장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학업과 꿈을 포기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2007년 설립돼 5명의 이사장을 거쳐 지금에 이른 (재)군포사랑장학회. 여섯 번째로 이곳을 맡은 김애란 이사장을 찾아 장학회의 오늘과 미래를 들어보았다.



김애란 이사장은 학창시절에 장학금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이 감사함을 성인이 되어 반드시 사회에 갚겠다고 결심했다. 이를 현실화하게 된 것은 군포 여성경영인 협의회에 있을 때다. 협의회에서 연말에 일정 금액을 장학금 기금에 쾌척하는 걸 보면서 어릴 때의 결심을 실천하기로 마음먹고 군포사랑장학회 감사로 활동, 이후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직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사장직을 맡고 보니 재정상태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다. 이자 수입과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금리가 떨어지니 원활한 예산 편성이 어려워진 것. 부족한 후원도 문제였다. 김 이사장은 먼저 자신의 사재부터 털었다. 이후 장학회 기금 마련을 위해 직원들과 더불어 등분서주 중이다.

군포사랑장학회에서 선발하는 아이들은 다양하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를 돕는 ‘면학장려’, 사회복지망에 등록되지 않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자립지원’은 물론, 성적이 우수하거나 과학·문학·예술·체육 분야 소질이 뛰어난 학생을 위한 ‘성적장학’과 ‘특기장학’, 5년간 수급자 자녀를 꾸준히 돕는 ‘드림플러스 적립’까지 마련되어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촘촘한 그물망 장학사업을 시행 중이다.

기억에 남는 학생을 꼽아 달라는 요청에 감사활동 기간에 접한 소식, 장학회 운영을 위한 직원과의 소통회의에서 들은 이야기를 끌어냈다.

“드림플러스 매칭으로 저희 장학회와 인연을 맺은 학생인데, 가정환경이 복잡한 케이스였어요. 어머니는 기출해서 행방불명, 친아버지와는 이혼 후 연락이 끊겼어요. 피를 나누지 않은 아버지, 남지형제와 함께 살고 있었죠. 드림플러스로 지원을 하는 내내, 혹시 가정 내 불화가 심각해지면 이 아이가 갈 곳이 없어지진 않을까 장학회 관계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어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 발달장애까지 앓고 있던 한 학생도 있었다”고 밝혔다. 2009년에 장학금을 받은 이 학생은 이후 300만원의 기탁금과 함께, 다시 장학회의 문을 두드렸다.

“학생은 ‘연어가 되어 돌아오라’는 말을 인상 깊게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장학증

서를 수여할 때 ‘지금은 수혜자의 입장에 있지만 나중에는 후원자가 되어 달라.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를 새겨두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후원금을 낼 입장이 되어 돌아와 준 것이죠.”

업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이처럼 생활여건이 나아진 학생들이 때때로 보이기 때문. 이외에도 편지나 전화로 고마움을 전해주거나, 음료수를 가지고 장학회를 찾는 학생도 종종 있다.

또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천709명의 장학생을 선발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각종 시 행사에 봉사자로 참여해 활동한다. 이번 독서대전 때도 3명이 한 조를 이뤄 총 27명이 ‘미니 대학 입학설명회’를 열어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성공 노하우를 전하기도 했다.

시민 참여로 성장하는 장학회

이처럼 활발한 장학 사업의 밑바탕에는 군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 김 이사장은 인상적인 후원 시민으로 모 무역회사 사장을 꼽았다. 어렸을 때 선친이 돌아가시면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그는 장학금 덕분에 학업을 끝마칠 수 있었고, 군포에서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 그는 2007년도에 군포사랑장학회가 발족했던 당시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 기탁을 시작했다. 게다가 주변 사업에게도 적극적으로 장학회 후원회원 가입을 권유한다고.

올해 9월 군포독서대전 때 헌책방을 운영한 시민들도 장학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됐다. 이들은 몇 만권의 헌책을 판 돈 320만원을 선뜻 장학회에 내놓았다. 책과 학생은 불가분의 관계이니, 책을 팔아서 마련한 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겠다는 따스한 의지였다.

김 이사장은 평소 회원모집을 위해 발로 뛴다. 각 분야 지인들과의 미팅에서 장학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그는 한 사람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기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모으는 것, 십시일반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금액의 많고 적음 보다는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차 한 잔 마시는 금액을 아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가야 하는 사회입니다. 소득재분배를 위해 시민 여러분이 함께 동행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결국, 수혜를 받는 학생들이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건 향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입니다. 모두 시민의 자녀들입니다.”

글·사진 | 이현수



군포사랑장학회

찾아오시는 길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군포시청 3층)

후원계좌 : 농협중앙회 188-01-036757(예금주 : 재단법인 군포사랑장학회)

후원문의 : 390-0995-6 www.gunpolove.or.kr

성장통을 넘어, 세계를 꿈꾸다

탁구선수 신유빈



크게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했던가. 2009년 SBS 예능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해 놀라운 재능을 선보였던 '탁구 신동' 신유빈(군포 화산초) 선수. 방긋 웃는 입매가 깜찍한 꼬마 숙녀는 이제 어엿한 승부사가 됐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시상식에서 꿈나무 상을 받은 그를 만났다.

'2015 대한민국 여성체육대상' 꿈나무 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올해 전국남녀중별선수권대회(4월) 단·복식, 전국소년체전(6월) 단체전, 문체부장관기대회(8월) 단식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죠. 우승을 얻거꾸 한 비결은 뭐라고 생각 하나요?

승부욕이요. 1-2세트 이기는 중에도 방심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세트가 있으면 비록 이기고 있어도 오히려 더 열심히 경기에 임하죠. 하지만 연습량은 동급생보다 많이 부족해요. 남들은 제 연습량이 동급생보다 월등히 많은 줄 알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빠나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기술 습득이 빠른 편인데, 연습은 다소 게을리한다며 "유빈이가 조금만 더 연습하면 더 잘할 텐데"라고 말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즐겁게 경기에 임하고 승부욕 때문에 기싸움에서 안 지니까 성적이 좋은 것 같아요. (웃음)

승리의 영광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2014년에 시니어 국제무대에 처음 나서서, 리 이자벨 시연(싱가포르)과 박 세리(단원고)를 만나 두 경기 모두 0-3으로 패하기도 했죠. 이렇듯 패배의 날도 있었는데, 최근 가장 힘들었던 경기는 무엇이었고 당시 심정은 어땠나요?

작년에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작년 12월 삼성생명 경기(제31회 삼성생명배 우수선수초청 탁구대회)에 나갔을 때가 기억나요. 다들 제가 1등 할 거라고 말했고, 저도 기대했는데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대회 치를 때는 담담했는데, 집에 돌아와서 온종일 울었어요.

힘들 땐 주로 뭘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편이에요?

힘들 때는 운동을 잠시 쉬고 다른 일을 해요. 나노 블록을 무척 좋아해요.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완성되어 있는 점이 좋아요. 큐브도 재미있어요. 종종 그림도 그리고, 웹툰도 즐겨 봐요. 전선욱 작가의 학원 시트콤 웹툰 '프리드로우'가 무척 재밌어요. 다양한 일러스트를 색칠하는 컬러링 북도 하구요.

'탁구 천재'라는 주변의 기대가 힘들 때는 없나요? 경기할 때 긴장은 안 되나요?

별로 신경 안 써요(웃음). 어렸을 때는 많이 떨렸어요. 극도의 긴장감 때문에 무서워서 눈물이 절로 날 때도 있었죠. 지금은 거의 떨리지 않아요. 긴장을 덜 하게 된 건 1, 2학년 때부터인 것 같아요. 하도 경기를 많이 치러서 그런 듯해요. 저 자신에게 집중하는 편이에요. 일단 경기가 시작되면, 호흡을 고르고 그 순간에 몰입하는 거죠.

라이벌 선수나 존경하는 선수가 있나요?

최해은 선수는 저보다 두 살이 많은데, 경기에서 만나면 절반은 이기고 절반은 졌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실업팀이 되면 나이가 상관없이 계속 경기에서 마주해야

될 선수죠. 좋은 라이벌로 생각하고 응원할 거예요. 존경하는 선수는 류스원(劉詩雯, 24, 세계랭킹 1위)이에요. 중국선수들은 덩치가 큰 편인데, 류스원은 비교적 아담한 체구죠. 기술이나 스타일에서 비슷한 점,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류스원이 한국에 게임을 하러 왔을 때 그가 나오는 경기를 빠짐없이 보러 갔어요.

군포에서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인가요?

어렸을 때 반월호수와 반월천에 자주 갔어요. 호수 근처에 보면 작은 하천이 있어요. 거기서 다슬기도 잡고 물장구도 쳤죠. 반월천에서 잡아온 다슬기가 집에서 2년, 3년 사는 것에 놀라기도 했어요. 올해 5월에는 엄마와 함께 철쭉동산의 꽃들을 만끽해서 기억에 남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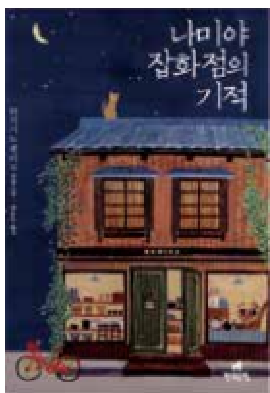
"얼마 전 유빈이가 어깨가 쭈신다고 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성장통이었다"라고 유빈 선수의 모친은 언급했다. 이제 탁구 신동은 탁구 천재를 넘어 세계 제패의 꿈을 꾸고 있다. 최근 유빈 선수의 키가 많이 자랐다. 커지는 신체를 근육이 못 따라잡아서 생기는 성장통. 유빈 선수가 앓은 성장통만큼, 그의 키도 부쩍 자라있을 것이다. 그의 탁구 실력도 것처럼 일취월장하기를.

글·사진 | 이현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강수진 | 수리동



힘 들고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누군가 제발 정답을 말해주었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직업적인 심리상담소를 찾기에는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 익명성이 보장되는 고민상담소가 있다면, 그것도 오늘 물어보면 당장 내일 아침에 성의 있는 편지를 적어주는 상담소가 정말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

을까.

인터넷과 각종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어느새 손편지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크리스마스카드나 청첩장마저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시대니 말이다. 나 역시 마지막 손편지를 언제 썼는지 기억조차 가물거린다.

하지만 진심 어린 손편지는 마음을 울리는 뭔가가 있다. 안에 담긴 편지가 행여 찢어질세라 밀봉된 편지를 조심스레 뜯을 때의 기대감, 곱게 접힌 편지를 열어볼 때의 설렘, 한 글자 한 글자 그 사람의 손길이 느껴지는 필체와 사그락거리는 종이의 감촉까지. 손편지에는 차가운 매체를 통해서 느낄 수 없는 감동이 있다.

책에서도 잡화점의 우유 상자를 통해 전달되는 나미야 할아버지의 고민상담 편지들이 많은 사람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것은 단순히 고민을 상담해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간과 마음속에서 흘러나온 소리는 어떤 것이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부인과 사별한 후 텅 비워진 할아버지의 심장도 사람들을 도와주며 다시 온기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33년이 지나 우연히 상담사가 된 초보도둑 쇼타, 고헤이, 아쓰야 세 사람도 다른 이를 도와주며 오히려 더 위안을 받게 된 건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낄 때 행복을 깨닫기 때문은 아닐까.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반짝거리는 별빛 바탕에 낡은 일본식 2층 상점주택이 그려진 표지가 제목과 어우러져 책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그리고 책 말미에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마지막 장면에서 절름발이 케빈 스페이시가 똑바로 걸어가는 뒷모습에 비견되는 반전이 숨어있어 다 읽고 난 후 처음부터 다시 읽으며 혹시나 놓쳤을지 모를 과거와 현재의 실타래를 찾게 했다.

책을 덮고 나니 갑자기 편지가 쓰고 싶어졌다. 오늘은 작은 문구점에 가서 알록달록한 편지지와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 한 자루를 사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써야겠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색연필로 답sal 돌는 빠알간 하트도 그려주고 말이다.

칭찬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영진 | 군포2동



몇 달 전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하게 됐다.

학교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 정~말 예쁜 아이라는 선생님 말씀에 꼭 내가 칭찬을 받는 거 같아 어깨가 절로 으쓱해졌다. 2학기 임원선거에 친구의 추천을 받고 나와 두어 번 동점표 끝에 부반장도 됐으며, 참 아무진 아이란다.

그런데 상담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딸아가 선생님께 “엄마가 칭찬을 별로 안 해준다”며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순간 수화기 너머였지만 얼굴이 화끈거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앞으로는 칭찬 많이 해주겠다”며 서둘러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정작 나는 선생님께 딸아가 학교생활 잘한다

는 말을 듣고 내가 칭찬받는 거 마냥 좋아했는데, 나는 왜 그런 딸아이를 칭찬해주지 않았을까!

이 정도 칭찬이면 되겠지 했던 행동을 아이는 ‘왜 이만큼 밖에 칭찬을 안 해주시지?’라고 느낀 것 같아 못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딸~ 엄마가 칭찬에 인색했던 거 같아, 앞으로는 더 많이 칭찬해줄게.

2학기 부반장이 된 것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림 그리기 상 받은 것도 축하해!

피아노면 피아노, 오카리나면 오카리나, 리코더면 리코더, 우쿨렐레까지 악기를 정말 잘 다루는 우리 회원이를 칭찬해. 책을 좋아해서 열심히 읽고 독서활동도 꾸준히 하는 모습도 많이 많이 칭찬해!

친구들과 잘 지내고, 어른들께 인사도 잘하는 회원이를 엄마는 진심으로 칭찬합니다~

그리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정말 고맙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게.



<군포소식>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 독후감 및 서평, 시와 수필, 사진(해상도 최소 300픽셀 이상) 등 시민 여러분의 삶이 담긴 글을 기다립니다.

홍보실 ☎ 390-0663

▶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기고방법 메일(gunpo-city@nate.com)에 기고자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기고자 사진 게재를 원하시면 jpg 파일을 함께 보내주세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

박혜련 | 산본2동



언젠가 보았던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주고 받던 대사 중에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와. 그때 문득 그 대사를 우리 사이에 적용해본 적이 있지. 아마 내 머리카락에서 빠져 눈에 띄는 흰 머리카락을 처음 발견했던 무렵이었을 거야.

20대에 만나 30대에 결혼하고, 40대를 함께하

는 지금 ‘지난 시간도 훌쩍 지나간 것처럼 빨랐는데 앞으로 나이 따라 속도를 더해가는 시간은 얼마나 더 빨리 지나갈까?’하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런데 왜 평소에는 당신에게 좋은 말만 하지 못할까? 내가 먼저 당신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왜 당신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며 속상해할까? 올해가 가기 전에, 마음속의 서운함을 바람에 흩날려버리기로 해. 미안해!

순간순간 고마울 때가 많았는데, 정작 표현을 잘 못 하며 산 것 같아. 당신은 내가 무엇인가 상의를 할 때면 항상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하고 내 마음을 먼저 묻곤 하지.

가장으로서 한결같이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는 당신을 보면서, 내게 많이 부족한 인내심과 끈기를 배우게 돼. 올해에도 가정을 위해 힘차게 달려준 당신에게 박수를 보내. 고마워!

우리가 부부로 살아갈 날들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함께하는 소중한 삶을 정말 보물처럼 아끼며 지내기로 해. 내년, 한 살 더하는 삶의 무게에 버거워하기보다 우리가 서로 손잡고 가는 길이기에 가벼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사랑해!

수리산의 만

박영란 | 광정동



어쩌면
올해의 마지막 단풍이 될지 모르는
수리산의 단풍을 보기 위해 올랐다.

“우와~”

비가 내려서 인지

낙엽도 쌓이고

단풍색도 정말 예쁘다.

수리정 앞의 노란색 단풍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윤서 | 오금동



대학시절을 치르려던 내게 “무슨 대학이냐?”며 만족스럽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부모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응원은 못 해줄망정 공부하지 말라니, ‘그게 부모가 할 소리냐’며 속으로 원망했었다.

그런 원망 탓이었을까? 시험을 잘못 본 것이 모두가 다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 아버지랑 눈길도 안 마주치고 술을 피해 다닐 때였다. 어느 날 밤늦게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예쁘게 포장된 상자 하나가 놓여있었다. 14K 귀고리였다.

시험 때문에 화가 나서 귀를 뚫고 귀고리를 했는데, 자꾸만 염증이 생겼다. 밤마다 소독하는 내게 여동생이 “싼 귀고리 해서 그래, 금으로 해야 안 덧나”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일까? 14K 귀고리 한 쌍을 본 순간 울컥하고 말았다.

“아버지가 언니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못 봤다고 아버지가 얼마

나 아쉽고 속상해하셨는데. 언니한테는 그렇게 말 씀하셨어도 속으로는 불었으면 하셨던 거야.”

“대학등록금 때문에 걱정은 하셨지만 불으면 내 려고 여기저기 돈 부탁도 미리 하셨었어. 언니가 알면 속상할까 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다시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에 또 시험 보라고 전해 달라고 하셨어. 열심히 해 봐.”

겨우살이 준비가 먼저일 텐데, 어디서 돈이 나서 귀고리를 사신 것일까? 어려운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작정 아버지만 원망했던 철없는 행동을 반성하면서 표현에는 둔하지만, 마음속은 항상 자식 걱정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귀고리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더욱 애뜻하게 느껴져 한 번씩 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져 기분이 좋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귀고리를 하고, 케이크 하나 사 들고 아버지를 찾아뵙리라.

찾아가는 일자리발굴단 참여자 모집



1. 모집내용 모집인원 7명

- 담당업무 • 일자리 및 구직자 발굴 • 이동취업센터 운영
• 기업체 현장방문을 통한 관내 구인-풀(Pool) 구축
• 구인처 사후관리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지원 등

2. 근무조건 사업기간 2016. 1. 8~2016. 11. 30

- 보 수 1일 33,150원 (주·연차 수당, 간식비 3,000원 별도 지급)
근무시간 주 5일, 월~금 13:00~18:00
근 무 지 군포일자리센터

3. 신청자격 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구직등록 필한 자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취업자 또는 직업상담(또는 관련업무)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미취업자

4. 신청방법 접수기간 2015. 12. 1(화)~12. 8(화) 09:00~18:00(근무시간 내)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군포일자리센터



5. 선발방법 및 발표

- 1차 서류전형 선발자 발표 : 2015. 12. 10(목) 개별 유선통보
※ 제출서류로 적격여부 심사(참여 신청서, 기타 증빙서류 등)
- 2차 면접일시/장소 : 2015. 12. 15(화) 14:00, 군포일자리센터
- 최종선발자 발표 : 2015. 12. 18(금) 15:00 이후
※ 본인에게 유선 통보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선발 결정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다음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사업기간 종료 포기가 발생 시에도 동일함)

6.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소정 양식, 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고시공고 참조)
- 관련 자격증 및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와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참여배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 390-0616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전문강사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교육내용 -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전문 강사의 역할

- 테마별 체험활동 지도방법
- 상·하루 트레이, 소품리스 시계 DM, 에코백 등 제작과정 실습

교육기간 2015. 12. 14(월)~12. 18(금), 09:30~14:30(총 25시간)

모집인원 10명(군포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신청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력단절여성으로 취업 및 창업의지가 뚜렷한 재선착순 선발

모집기간 2015. 12. 2(수)~12. 9(수), 09:00~18:00

접수처/신청방법 (취티트리 / 방문 신청

※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5, 502호(산본동, 동원프라자)

제출서류 참여 신청서 1부

※ 신분증, 구직활동, 복지카드(해당자에 한함) 등 해당 증명서류

수강료 본인부담 5만원

※ 중도포기 시 환불 안 됨

참여자발표 2015. 12. 10(목), 개별 유선통보

군포일자리센터 390-0614, (취티트리) 393-2883

이달의 고용 우수 기업



기업명 조경E&C (주)구상
소재지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A동 706호(당정동, 군포IT밸리)
업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근로자 12명
신규채용 2명

군포일자리센터 12월 추천 일자리

gyeonggi.work.go.kr/gunpo/main.do

회사명	주소	사업 내용	모집 직종 및 인원	근무시간	임금	전화번호
토스스타디	군포시 고산로 681, 401호(산본동, 성원빌딩)	독서실 내면화관리, 고객관리 상담	독서실 총무 1명	주말 21:00~02:00	시급 5,600원	031-395-5589
(주)GS리테일	군포시 한세로 12번길 25(당정동)	대형마트	슈퍼마켓 점원 1명	평일 14:00~23:00	시급 5,600원	031-451-3033
(주)파오스	군포시 산본로 77번길 3개(당정동)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	생산관리 1명 품질관리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160만원	031-453-6860
(주)제이에스르시스	군포시 대야로 15번길 5(대야미동)	화물 운송	11톤 왕버디 기사 1명	평일 21:00~04:00 (시간 협의 가능)	월급 200만원	031-313-1941
아태산업개발㈜	군포시 반영로 82, 한국복합물류 내(부곡동)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시설관리(건축팀장) 1명	평일 09:00~18:00	월급 230만원	031-460-2119
토리해아산본사거리점	군포시 고산로 696(산본동)	미용업	헤어 디자이너 1명	주 6일 10:00~20:00	월급 150만원	010-6770-2210
군포매화종합사회복지관	군포시 곡반로 22(산본동)	가족, 교육, 지역, 재가, 자활사업 진행	LS 드림사이언스 클래스 전담 (행정업무 등 보조교사)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50만원	031-393-3677
(주)에스제이	군포시 능성로 56, A동 3~4층(당정동)	UV코팅, 진공충착	생산직 5명	주 6일 09:00~21:00 (잔업 포함 시간)	시급 5,580원	031-453-3400
(주)미광에이피에이	군포시 대야로 35, 1층(대야미동, 천봉프라자)	무정전전원장치, 자동전압조정기 제조	전기기사 엔지니어 1명	평일 09:00~18:00 (토요 격주)	연봉 2,300만원	031-437-7113
삼우안전관리㈜	군포시 고산로 539번길 7-12(산본동, 모항현대아파트)	아파트 경비구역, 청소구역	경비원 1명	격일 06:00~06:00	월급 145만원	010-9929-4357
성민재가노인복지센터	군포시 군포로 487, 502호(당정동, 동원프라자)	복지사업	재가 요양보호사 1명	평일 09:00~12:00	시급 7,500원	031-397-2020
토모이트원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47-11(당정동)	육가공 전문	배송영업 기사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70만원	031-451-0522
(주)코롬방제과	군포시 엘에스로 45번길 85(당정동)	초콜릿 전문 메이커	영업원 1명	평일 08:30~18:30	연봉 2,800만원	031-458-6374 (내선 112)
(주)나루	군포시 고산로 148번길 17, B-1605호(당정동, 군포IT밸리)	과학기기 및 소모품 도매, 제조업	영업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200만원	031-8086-7253
성우전자주식회사	군포시 공단로 100(당정동)	가전제품 및 의료기기용 controll pcb assembly	품질관리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200만원	031-8086-7253
(주)엔씨홈넷	군포시 당정로 13번길 10-5, 2층(당정동)	말 사료, 장구, 무역	경리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월급 150만원	031-458-0582
한국광성전자㈜	군포시 공단로 356-3(산본동)	냉각설비 및 금형 자동온도 조절기	전기 및 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2명	평일 09:00~18:00 / 20:30~08:00	시급 5,580원	031-687-8565
(주)아이스코리아	군포시 공단로 278-1(당정동)	대형마트에 생활용품 등을 판매	물류사무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1,800만원	031-459-5955
(주)코아전기	군포시 산본로 101번길 13(당정동)	코아 제품 생산	품질관리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200만원	031-453-3088
(주)에라리아	군포시 한세로 30(당정동)	식생매트, 스칸디나모스(조경, 건축자재 벽면녹화)	건축자재 영업원 1명	평일 09:00~18:00	연봉 2,000만원	031-477-7113
동일정밀	군포시 고산로 118번길 13(당정동)	금형부품 제조업	금형제작 가공원 1명	주 6일 09:00~18:00	연봉 1,800만원	02-809-9935
신화엘리베이터㈜	군포시 산본천로 99, 디파아울렛타운 내(산본동)	엘리베이터, 주차기 카리프트	승강기 유지보수 기사 3명	평일 08:30~18:30 (토요 격주)	월급 180만원	031-395-0308
담원푸드㈜	군포시 산본로 86번길 26-1(당정동)	농산물 가공 및 소스 제조사업	식품가공원 1명	평일 09:00~18:00 (2시간 잔업 있음)	연봉 2,300만원	070-4616-1134
주식회사성국정공	군포시 능성로 59번길 9(당정동)	소프트 제조, 전자부품	납품영업직 1명	08:30~20:30 (토요 격주)	월급 200만원	010-5263-3882
(주)리소텍오트	군포시 당정로 75번길 15(당정동)	자동차 부품 생산	개발팀 품질지원 1명	주 6일 08:30~17:30	월급 170만원	031-457-2693
(주)유일전주	군포시 능성로 88-16(당정동)	핸드폰 전주금형 제작	플라스틱 사출기사 1명	주 5일, 2교대 08:30~17:30 (잔업 있음)	월급 250만원	031-456-2190
미성산업개발㈜	군포시 용호1로 2번길 47-7(당정동, 미성테크플라자)	부동산 임대업/ 부업종: 부동산(소싱센터 운영 및 관리)	직업치로사/물리치로사 1명	평일 08:30~17:30	연봉 2,000만원	031-398-0186
아름다운가게	군포시 당정로 40-6(당정동)	생활용품 판매, 커피 가공(도매)	창고관리원(입출고) 1명	평일 08:30~17:30	월급 132만원	031-441-5096

군포일자리센터는 동영센트럴타워 504호(군포시청소년수련관 옆 건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을 위한 취업상담, 일자리 발굴, 취업지원 교육 등을 위해 전문 직업상담사들과 전담 공무원 등이 항상 대기 중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방문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일자리는 2015년 11월 20일 기준 구인정보이며, 업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기업별 맞춤형 상설 면접, 채용 대행
참여 문의 : 390-0347

안전·행복지수 모두 상위 1% 군포

국민안전처, 지역발전위원회가 인증



“군포시의 안전 등급, 삶의 질 만족도 지수는 전국 자치단체 중 상위 1%다.”

지난 9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2위를 기록하며 주목받았던 군포시가, 11월 4일 국민안전처의 ‘지역안전등급’ 발표에서도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2위로 나타나 화제다.

국민안전처는 안전과 관련된 35가지 통계 자료를 분석해 전국 226곳 기초자치단체의 7개 분야 안전지수를 공개했는데, 군포는 4개 분야(화재·교통·안전사고·자살)에서 1등급에 속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 결과 특히 생활인프라, 산업, 복지, 교통, 문화 분야에서 시민들이 높은 만족

도를 보여줬는데 이 모두가 안전이 보장된 상태였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삶의 질 만족도와 안전등급 조사에서 연속으로 2등을 하니 아쉬움도 있지만,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크다”며 “최근 자체적으로 시행한 시정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참조해 2016년은 더 행복한 군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안전처가 7개 분야로 구분해 작성한 2015년 지역안전등급표에 의하면 조사 대상 226개 자치단체 중 9개 시·군·구만 4개 분야 이상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자치단체는 군포시와 수원시 단 2곳이다.

안전도시과 390-0443

8년 만에 상수도 요금 인상



평균 10% 수준... 11월 사용분부터 적용

군포시의 상수도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됐다.

시는 지난 2007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이후 시민 부담을 우려해 지속해서 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시민 편의 향상을 위한 수도 사업 시행에 있어 재원 부족이 계속돼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포시민들은 11월부터 요금이 평균 10% 인상된 상수도를 사용하게 됐으며, 해당 요금은 2016년 1월에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평균 하수도 사용량이 16㎡(톤)인 가정이 기존에 7천840원의 요금을 냈다면, 이후로는 800원이 증가한 8천640원을 내야 한다.

강민원 수도사업소장은 “더 깨끗한 물 공급, 수도 검침 및 요금 시스템 향상 사업 등을 위해 상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물 공급, 건전한 시 재정 운영을 위한 결정에 시민 여러분의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시 홈페이지(www.gunpo.go.kr→새소식)에서 확인하거나 전화(390-3223-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수도사업소 390-3221

<표> 월평균 사용량에 의한 인상 전후 비교

구분	월평균 사용량	상수도 사용료(단위: 원)		
		당초	변경	월증가액
가정용	16㎡	7,840	8,640	800
일반용	125㎡	120,750	133,500	12,750
대중탕용	1,467㎡	1,199,640	1,321,670	122,030

※ 월평균 사용량으로 계산된 사용료로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당역 가기 더 편해졌다

1002번 좌석버스 군포 경유 이끌어내다

1002번 좌석버스가 11월부터 군포시를 경유해 사당역으로 향했다.

군포시와 제부여객의 협의 끝에 확정된 이 노선에 의하면 1002번 좌석버스는 제부도를 출발해 군포에 진입한 후 대야미삼거리, 복합물류단지 후문, 당동주공아파트, 군포평생학습원, 한세대학교 정류장을 거쳐 사당까지 간다.

지난달 11일 오전 4시 30분 첫차(제부도 출발, 사당역 도착)부터 적용된 이 노선버스는 1일 18회(배차간격 50~70분) 운행된다.

이에 따라 군포2동 지역주민 등의 군포시민 뿐만 아니라 많은 경기도민이 환승 불편 없이 사당역과 제부도를 오가기 더 편해졌다고 시는 밝혔다.

조남 교통과장은 “군포에서 사당까지의 교통수단이 늘어남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에 시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가 많으면 버스 회사에 증차와 증회를 요청하는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02번 좌석버스의 제부도 기준 첫차는 4시 30분 막차는 21시 30분이며, 사당역 기준 첫차는 6시 15분 막차는 23시 10분이다. 더 상세한 정보는 제부여객에 문의(356-5979)하면 알 수 있다.

교통과 390-0825





산본역 교각 벽화 사업 추진 안내

군포시는 노후 및 오염돼 도심의 미관을 저해하는 전철 4호선 산본역 교각 하부공간을 테마가 있는 벽화로 꾸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군포시브랜드를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 ▶ 사업명 전철 4호선 하부 교각 벽화
 - ▶ 규모 총연장 3.3Km, 교각 136개(원형 100개, 사각 36개)
 - ▶ 시행방법 디자인 도색
 - ▶ 사업방향 대상이 공공시설물임을 고려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품격 있는 도시이미지를 표현하려 함
 - ▶ 의견수렴 현재 시가 검토 중인 디자인 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소통과 공감을 위해 개설한 블로그(www.designgunpo.com)에 제시(관련 게시물에 댓글 쓰기)
 - ▶ 디자인안
 - TYPE 1
 - ① 배경으로 연한 아이보리 색상을 사용하고, 책에서 쏟아져 나오는 듯한 철책을 표현
 - ② 책갈피와 철책을 자유 배치해 전체적으로 현대적이면서 간결하게 구성
 - ③ 사람 눈높이의 교각 하단에는 군포시 로고를 넣고, 책과 철책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픽토그램으로 표현
 - TYPE 2
 - ① 전체적으로 연한 아이보리를 기본색채로 사용하고, 철책과 책의 그래픽 패턴을 자유 배치해 시각적으로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
 - ② 유선형의 라인을 더해 시각적으로 부드럽고, 자연친화적인 분위기가 들도록 조성
- ※ 공식 블로그(www.designgunpo.com)에서 더 자세한 이미지 확인 가능



TYPE 1



TYPE 2

홍보실 390-0753

2016 군포시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 모집기간 2015. 12. 2(수) 09:00~12. 10(목) 18:00
2. 선발인원 50명
3. 운영기간 2016. 1. 4~1. 29 (4주간)
4. 신청자격 접수일 현재 군포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국내 소재 전문대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1세대 1명)
 - ※ 제외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기 참여자(1순위자 포함), 휴학생(복학예정자 포함), 평생교육원·사이버대학·방송통신대학 재학생
5.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
6. 선발방법
 - 전산추첨에 의한 공개방식: 전산추첨시 공무원 3명, 참관희망학생 3명 이내 입회
 - ※ 참관 희망학생 선착순 3명 접수: 390-0834(아르바이트 신청자에 한함)
 - 선발인원에서 1순위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접수인원을 제외한 인원 추첨 선발
 - ※ 1순위자 포함한 10명 이내 20명 추가로 선발, 포기자 발생에 대비한 대기자로 활용
7. 추첨일: 2015. 12. 11(금) 10:00
8. 선발자 발표 및 등록
 - 발표: 2015. 12. 14(월) 16:00 군포시청 홈페이지(www.gunpo.go.kr, 새소식란)
 - 등록: 2015. 12. 15(화)~12. 17(목), 군포시청 자치행정과
9. 근무조건
 - 임 금: 일당 48,240원
 - ※ 주차수당, 월차유급수당 지급
 - 근무시간: 월~금, 09:00~18:00(8시간)
 - ※ 도서관외 경우 월, 금요일 휴무
 - 담당업무: 행정업무 보조 및 현장업무 지원



자치행정과 390-08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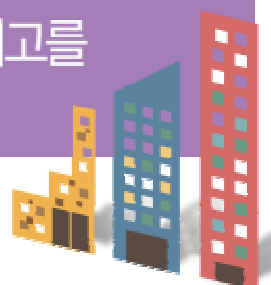
2015년도 2분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 ▶ 과세기간 2015. 7. 1~12. 31
- ▶ 납부기간 2015. 12. 16~12. 31
- ▶ 납세대상 2015년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
- ▶ 납부장소 전국 모든 은행
- ▶ 편리한 납부방법
 - 직접 납부: 전국 우체국 및 농협(참구) 및 모든 은행 CD/ATM기 납부
 - 인터넷 납부: 위택스(www.wetax.go.kr)지로(www.giro.or.kr)
 -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의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
 - ※ 카드납부: 위택스, CD/ATM기, ARS 1577-9885
- ▶ 자동이체시 지방세 세액공제 안내
 - 대상세목: 정기분(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 신청기간: 정기분 납부기한 전달까지 신청한 납세자
 - 신청방법: 자동이체는 전국 모든 은행, 위택스, 군포시청 세정과
 - ※ 전자고지는 위택스에서만 가능
 - 공제금액
 - 자동이체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자동이체+전자고지서 송달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 ※ 예금잔액 부족시 자동이체가 불가하며, 공제받은 세액과 미납 가산금 추정

세정과 390-0203, 0535, 0205, 0183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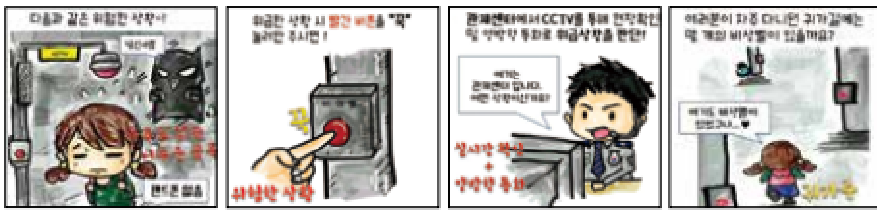
- ▶ 사업내용: 집합건물 관련 관리인, 구분소유자 대상 전문가 교육
 - 전문강사: 변호사, 회계사
 - 참석대상: 집합건물 관리인, 구분소유자 등
 - 특강내용: 분쟁 소송사례, 집회의 개최 및 관리위원 선임, 외사록 작성·보관,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 건물 하자 및 보수 등
 - 진행: 전문가 강의(60분) 후 질의응답(30분)

▶ 일정 및 장소

일자	장소(권역별)	시간 및 강사	참석 대상 사군
12. 11(금)	안양시 동안구청 (대회의실)	14:00~15:30 김연기 변호사 15:40~17:10 권동영 회계사	안양권역 (안양, 군포, 외왕, 과천)

건축과 390-0382

안전지킴이 'CCTV 비상벨' 이용 안내



군포시에는 범죄예방을 위해 총 482개의 비상벨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군포경찰서 생활안전과 관계자는 "위급상황이 발생 시 주변의 CCTV를 찾아 비상벨(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관제센터 요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관이 즉시 출동한다"고 말했다.

군포경찰서 생활안전과 390-9146

군포로 등 21개 구간 조업주차 허용

군포로, 변영로 등 21개 구간(68.935km) 내 식당음식점 밀집지역 주변의 조업주차가 10월 26일부터 허용됐다.

군포경찰서와 군포시는 "지역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계·영업을 위한 20분 이내의 주차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단,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는 기존대로 불법 주차 단속이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경찰서 교통과에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경찰서 교통과 390-9358

2016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보조금 지원 신청 안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교체 등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고 있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15. 12. 16(수) ~ 2016. 1. 15(금)

▶ 신청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 공용시설의 에너지 절약 사업
-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업
- 정화조 교체(신설) 및 보수사업
-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 담장 허물기 사업(군포시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른 사업은 제외)
-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15년 미만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외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된 건설업자에게 발주 및 시공 의뢰

▶ 지원기준

- 2016년 확보된 예산범위내 총사업비의 최고한도 80% 이내 지원 가능(2,000만원 이내 범위)
- 예산액 보다 초과 신청 시 예산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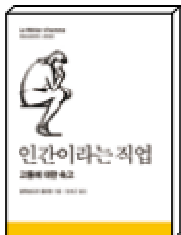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참고

▶ 구비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혹은 입주인 2/3이상 동의서, 설계도서 등

▶ 접 수 처 군포시청 1층 건축과(건축지도팀)

건축과 390-0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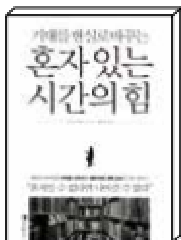
군포시 도서관의 12월 추천 도서



<인간이라는 직업> 저자 알렉상드르 줄리앵 / 출판사 문학동네

성인

저자는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내내 일하면서 수습 기간을 거쳐 인간이 된다고 말한다. '인간이라는 직업'은 크게 세 가지 일터를 가진다. 몸을 돌보는 일, 마음을 돌보는 일, 마지막으로 종종 잘 잊히는 남을 돌보는 일. 작가는 인간이라는 직업에 몸과 마음을 다해 투신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하면 우리 외 약함이 놀랍도록 풍부함의 장소가 된다고 밝힌다.



<혼자 있는 시간의 힘> 저자 사이토 다카시 / 출판사 위즈덤하우스

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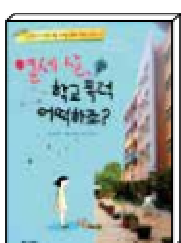
다양한 이유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이들이 많다. 저자는 대입 재수 시절인 열여덟 살부터 첫 직장을 얻은 서른두 살까지 절저히 혼자 시간을 보내며 묵묵히 내용을 쌓았다. 이 책은 직접 경험한 시행착오들을 진솔하게 소개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을 알려준다.



<901호 땃똥 아저씨> 저자 이옥재 / 출판사 노란돼지

청소년/아동

요즘 흥간소음은 뉴스에서 수시로 다루는 뜨거운 이슈다.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작가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말한다. 특히 사랑으로 행복한 생활공간을 만들어가자는 의미 있는 목소리가 담겨있다. 흥간소음 때문에 인터콘이 울릴 때마다 캄캄암캄 놀라는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보면 좋은 책이다.



<열세살 학교 폭력 아떡하죠?> 저자 임여주 / 출판사 스콜라

청소년/아동

똥서들을 시키고, 나만 빼놓고 휴대전화 채팅을 하고, 교실에 들어가도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등 다양한 학교 폭력에 상처받고, 상처 주며, 때로는 방관하는 아이들을 위한 심리 에세이다. 심리학을 전공하고, 공부방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그들의 내밀한 일상을 접한 작가가 아이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학교 폭력의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 준다.

숨은그림찾기



숨은그림 방울, 바셋, 도끼, 조개, 아이스크림, 종이배, 두루마리 휴지

수수께끼 군포OO정착회는 2007년 설립된 청소년 육성 재단이다. 6면 참조

정답제출 숨은그림과 수수께끼의 정답을 찾아 표기한 후 사진을 촬영해 12월 17일까지 군포시 페이스북(facebook.com/gunpocity)을 방문해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섯 분을 추첨해(페이스북 공지)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권 발송을 위한
개인 정보 수집 동의

-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상품권 배송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개인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 보유 후 파기

동의함
동의 안함

☐ ☐



2015년 군포,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군포시는 1989년 1월 1일, 시(市) 단위 자치단체로 승격했습니다.
그 후 27년 가까이 흐른 시점인 오늘의 군포는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2015년 10월 말 기준, 각종 통계자료를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군포시 전경



기본 현황

인 구

세대 수	인 구(명)		
	계	남	여
106,757	287,738	143,129	144,609

- 전월 말(288,058명) 대비 320명(0.11%) 감소
- 경기도의 2.25%
- 등록외국인 : 총 7,048명, 남 3,696명, 여 3,352명 (※ 인구수에서 제외)

면 적 : 36.41km²

- ▶ 지역별
- 주거지역 : 792km²(21.7%) • 상업지역 : 0.66km²(1.8%) • 공업지역 : 260km²(7.1%) • 녹지지역 : 25.28km²(69.4%)

지목별

계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36.41km ²	2.86km ² (7.8%)	1.73km ² (4.7%)	15.55km ² (42.7%)	5.51km ² (15.1%)	10.76km ² (29.6%)

동 별

군포1	군포2	산본1	산본2	금정	재궁	오금	수리	궁내	광정	대야
3.70km ²	5.89km ²	0.75km ²	1.17km ²	1.26km ²	0.87km ²	1.07km ²	2.73km ²	1.68km ²	1.90km ²	15.39km ²

- 개발제한구역 22.738km²(군포시 면적의 62%)

행정구역 : 11개동 335통 2,316반

군포1	군포2	산본1	산본2	금정	재궁
37동 287반	48동 479반	30동 201반	30동 196반	22동 124반	31동 198반
오금	수리	궁내	광정	대야	
29동 199반	30동 153반	29동 195반	35동 210반	14동 74반	



재정규모

- ◎ 총 규모 : 6,660억 7912만원
- ▶ 일반회계 : 4,492억 5,352만원 (67.4%)
- ▶ 기타특별회계 : 1,393억 4,918만원 (20.9%)
- ▶ 공기업 : 774억 7,642만원 (11.6%)
- ※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기반시설

- ◎ 도 로 (도로개설율) : 100% (186km)
- 주 택 (주택보급율) : 99%
- 상수도(상수도보급율) : 99%
- 하수도(하수도처리율) : 99%



기업체

구분	계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
업체수	1,504	4	44	1,456
종업원수	23,484	2,515	3,837	17,132



학 교

학 교 (개소/명) : 47개교 38,739명			
초	중	고	대학교
25개교 17,092명	12개교 9,376명	8개교 9,477명	17개교 2,794명



의·약 업소

의료법 관련 업소 현황

구분 계	종합 병원	병 원					의 원			세탁물 처리업	안마(원) 시술소	치 과 기공소	안경원
		양방	한방	치과	요양	정신	일반 의원	한 의원	치과 의원				
357	2	2	0	2	5	1	134	56	84	0	10	24	37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관련 업소 현황

구분	약 국	한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업사	의료기기 판매업소	
계	358	104	5	19	1	229



사회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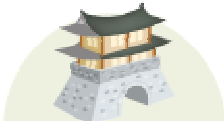
계	종합사회 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노 인 복지관	미혼모 시 설	지 역 자활센터	지 역 아동센터	경로당	어린이집
434	3	1	2	1	1	14	112	298



자동차 등록 현황

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96,067	79,118	3,714	12,859	376

※ 이륜차량 4,437대, 건설기계 582대



문화재 현황

국가보물	국가중요 무형문화재	국 가 기념 물	경기도무형 문화재	경 기 도 기념 물	경기도 문화재자료	전통사찰
1	1	1	1	4	1	1



식품위생업소

총 계	식품 제조가업	식품가물제조공업	죽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식품접객업						수입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판매업	집단급식소 등	
				소 계	소분업	자 판 기	기타 판매업 포장업	소 계	휴게업	일반업	단란업	유흥업	위탁업					제과업
4187	78	17	202	280	33	140	107	2764	353	2161	49	107	22	72	97	547	15	187



공중위생업소

업종	계	숙박업	목욕업	아미용업	피부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기타
업소수	884	71	14	512	87	145	53	2



주차장 현황

계 (단위 : m)	공영주차장			건축물부설 주차장	민영노외주차장
	소계	노상	노외		
96,201	5,997	3,157 (5개소)	2,840 (28개소)	90,812 (2,961개소)	262 (10개소)

시민의 눈과 지혜 더해 책 구매 도서관 우수회원 참여한 '시민도서선정단' 운영

책 읽는 군포가 공공도서관 운영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군포시 공공도서관이 신간 도서를 구매할 때 사전 선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시민 눈높이 행정을 실현하는 것이다.

시민이 볼 책을 시민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시는 2016년 1월 중에 '시민도서선정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 활동할 '시민도서선정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군포지역 6개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 담당자 등 공무원 7명과 도서관 이용실적이 우수한 시민 8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 가운데 시민 8명은 6개 공공도서관에서 추천(중앙·산본 도서관 2명씩, 당동·대야·어린이·부곡 도서관 각 1명)하는데, 도서 대출과 연계기록 등 도서관 이용실적을 조희해 우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사를 타진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시민도서선정단'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실무 강화 차원에서 북(book) 큐레이션 교육, 우수 도서관이나 출판사 견학 등의 전문 교육을 받아 개인 소양을 높일 수 있다.

또 대출 권수 및 기간의 증가 등 도서관 이용에 있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우수 활동가에게는 시장 표창이 주어질 예정이다.

조영환 중앙도서관장은 "시민도서선정단 운영은 수요자 맞춤형 도서관 운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공무원의 전문성에 시민의 눈과 지혜를 더해 좋은 책을 도서관에 비치하면, 도서관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390-8872

군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12월 추천 환경도서

플라스틱, 바다를 구해줘



지은이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
출판사 북로드

데이비드 드 로스차일드가 다섯 명의 선원과 페트병 1만2천500개로 만든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넌 친환경 항해일지. 선원들은 육지에서 까마득하게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에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쓰레기를 보게 되고, 그 쓰레기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체들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데...

통합 반납 서비스

통합 반납 서비스란 군포시 관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거주지와 가까운 도서관에서 언제나 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시행기관 6개 공공도서관(중앙, 산본, 당동, 대야, 부곡, 어린이), 밥상머리 북카페(시청), 이동도서관(버스), 당정문화도서관(문화원사), 산본역도서관(전철4호선)

- ▶ 운영방법 반납된 도서는 오전, 오후 1회씩 회수해 대출한 도서관으로 회수
- ▶ 반납방법
 - 중앙·산본·부곡·어린이 도서관 → 타관 무인반납기로 직접 반납
 - 당동·대야·밥상머리 북카페
 - ① 자료실 이용시간 → 자료실에 반납
 - ② 자료실 이용시간 외 → 타관 반납함에 반납
 - 이동도서관 → 운영시간에 직접 반납

중앙도서관 390-8885

도서관 동아리독서회 어울림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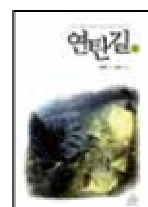
군포시 도서관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 및 독서회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동아리·독서회 어울림의 밤』 행사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일 시: 2015. 12. 17(목), 18:30~21:30
- ※ 18:10부터 입장 가능

- ▶ 장 소: 군포시 중앙도서관 소극장

- ▶ 대 상: 6개 공공도서관(중앙, 산본, 당동, 대야, 어린이, 부곡도서관)에서 활동 중인 동아리·독서회 회원



- ▶ 행사내용
 - 1부 (18:30~20:30)
 - 행사 소개
 - 이철환 작가 초청 강연회,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
 - 2부 (20:30~21:30): 동아리·독서회(회원) 소개
- ※ 발표 참여 동아리 접수: 2015. 12. 14, 18:00까지
- 참여방법: 방문 접수(각 도서관 방문 후 참가신청서 작성·제출)
- 발표시간: 5분 이내
- 발표내용: 동아리 소개 및 활동내역 등

- ▶ 상세정보: 군포시 도서관 홈페이지(www.gunpolib.or.kr)

중앙도서관 390-8883, 8842

12월 수요일 영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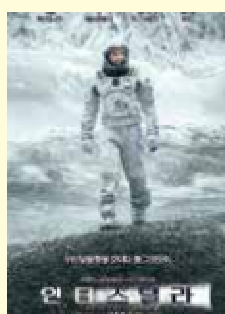
12월 2일
두근두근 내 인생 2014

- 장르: 드라마
- 시간: 117분
- 감독: 이재용
- 주연: 강동원, 송혜교, 조성묵, 백일섭
- 등급: 12세이상 관람가



12월 9일
비긴 어게인 2014

- 장르: 드라마, 멜로, 코미디
- 시간: 104분
- 감독: 존 카니
- 주연: 키아라 나이틀리, 마크 러팔로, 애덤 리버인
- 등급: 15세이상 관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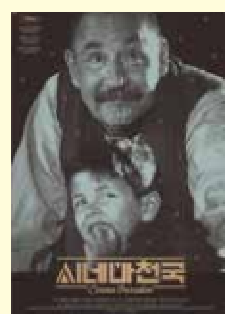
12월 16일
인터스텔라 2014

- 장르: 드라마
- 시간: 169분
-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 주연: 매튜 맥커나히, 앤 해서웨이
- 등급: 12세이상 관람가



12월 23일
8월의 크리스마스 1998

- 장르: 드라마, 로맨스
- 시간: 97분
- 감독: 허진호
- 주연: 한석규, 심은하, 신구, 전미선
- 등급: 12세이상 관람가



12월 30일
시네마 천국 1988

- 장르: 드라마
- 시간: 173분
- 감독: 주세페 토르나토레
- 주연: 필립 노와레, 자코 페렐
- 등급: 15세이상 관람가

▶ 일 시: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장 소: 중앙도서관 지하1층 소극장 ▶ 문의: 390-8884

★선착순 80명, 무료 관람(상영 20분 전부터 입장 가능) ★음식을 반입 금지 ※영화등급을 꼭 확인하세요!

12월

밥이 되는
인문학



철학자
|
안광복
|

철학에게
미래를 묻다

2015. 12. 17 오후2시 군포시청 대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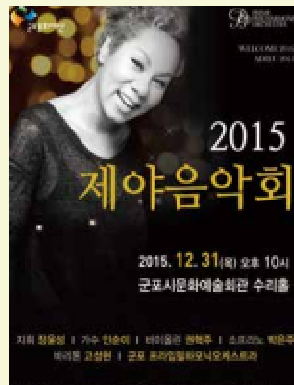
SHOW

군포시문화예술회관 390-3500~2 / www.gunpoart.net



유니버설발레단 호두까기 인형

일 시 2015. 12. 11(금) 19:30
12. 12(토) 15:00, 19:30
관람 시간 120분(인터미션 포함)
장 소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장 르 발레
입장 연령 5세 이상
입 장 료 R석 6만원 / S석 5만원 / A석 4만원
공연 내용 크리스마스와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따뜻하고 화려한 무대



Welcome 2016! 2015 제야음악회

일 시 2015. 12. 31(목) 22:00
관람 시간 130분(인터미션 포함)
장 소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수리홀
장 르 클래식
입장 연령 8세 이상
입 장 료 R석 5만원 / S석 4만원 / A석 3만원
공연 내용 가수 인순이와 성악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협연

여담 시네마

영화로 보는 요리

줄리&줄리아



일 시: 2015. 12. 3(목) 14:00~16:00
장 소: 군포시여성회관 2층 대회의실
공연장르: 드라마
관람연령: 12세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122분
공 연 료: 무료
줄 거 리: 전설적인 프렌치 셰프와 그 셰프의 요리를 따라 하
는 블로거의 맛있는 이야기

군포시여성회관 390-3080 www.gpwoman.or.kr

상상극장

제159회 정기공연

스노우맨의 겨울이야기



일 시: 2015. 12. 8(화)~19(토)
장 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장 르: 뮤지컬 인형극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출 연 팀: 극단 작은세상
입 장 료: 일반 8,000원 / 회원 6,000원
※ 금요일 저녁에는 아빠 무료
공연내용: 스노우맨 슈슈와 소년 친구의 신나는 세상 구경

군포시평생학습원 390-3054~5 www.happygp.or.kr

2015 군포 레디~액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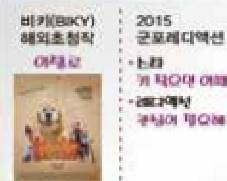
어린이영화 페스티벌

군포레디액션 어린이단편영화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해외초청작을
즐거운 영화체험활동과 함께 만나보세요!

상영작 안내

- 관람 료 무료 (당일 선착순 입장)
- 관람등급 전체관람가

12. 9(수) 17:00 [1회]



12. 10(목) 17:00 [2회]



영화체험활동

- 체험 료 무료
- ★사전예약 필수★
☎031-390-3073 (12월 7일까지)
· 1인당 1회 프로그램 신청에 한함
· 체험활동 및 상영작 관람 (16:00~19:00)

평점&평 / 나도 영화감독

-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영화처럼!
- 모집대상: 초등학교 4학년 이상
- 각 회당 20명 선착순 전화접수
- ★스마트폰 소지 필수★

12. 9(수) 16:00 [1회] / 16:30 [2회]

12. 10(목) 16:00 [3회] / 16:30 [4회]

평점&평2 복면영화왕

- 영화 캐릭터 중이 가면 만들기!
- 모집대상: 군포시민 누구나
- 각 회당 30명 선착순 전화접수

12. 9(수) 16:00 [1회] / 16:30 [2회]

12. 10(목) 16:00 [3회] / 16:30 [4회]

장소 군포시청소년수련관 4층 청소년극장 문의 (재)군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031-390-3073

군포 G시네마 12월 <ART 특집> 상영프로그램

군포문화재단 시민문화팀 390-30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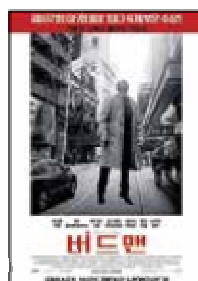


12월 7일 / 12월 14일

백야

냉전시대 자유를 향한 발레리노의 감동
드라마!

감독	테일러 허포드
장르	드라마
시간	136분
등급	12세 관람가



12월 21일 / 12월 28일

버드맨

퇴물 액션배우가 연극배우로 거듭나며
자아와의 힘겨운 전쟁을 시작한다!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
장르	드라마
시간	119분
등급	청소년 관람 불가

- ▶ 일 시 2015. 12. 7~12. 28. 매주 월요일 11:00
- ▶ 장 소 군포시평생학습원 5층 상상극장
- ▶ 대 상 관람등급에 따름
- ▶ 내 용 군포 G시네마가 엄선한 <ART 특집>
영화와 만나다!
- ▶ 입 장 료 무료(특집 상영기간내)